

우울한 教授職

金 鎮 英

(慶熙大 國語國文學科)

나는 재학 시절 교직이야말로 세상의 온갖 직업 가운데 가장 뜻 있고 성스럽기까지 한 職種이라는 생각을 품어 왔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 집안 어른들이 다른 분야를 권하였지만 사범대학으로 진학할 것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도 평소의 이같은 所信에 따른 것이었다.

대학에 다니면서 恩師님들의 가르침과 삶을 접하던서는 교직 중에서도 교수직이야말로 참 멋 있고 보람 있는 정말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 시대에 곳곳한 민족 의식으로 우리 말과 글을 지켜오신 선생님, 독재 정권 치하에서는 쓴 소리 곧은 소리를 앞장 서서 進言하며 知性의 곳곳함을 보여 주시던 선생님,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 도시락까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밤 늦도록 연구실 불을 밝히시며 학자로서의 열정을 불태우시던 선생님, 제자들의 신상 문제나 직장 문제를 당신 일같이 나서서 걱정하고 풀어 주시며 어버이같은 慈愛를 보여 주시던 선생님, 우리들 제자들과 격의 없이 지내시며 勉學의 자세를 채찍질하고 격려해 주시던 선생님……. 이런 恩師님들과의 만남은 나에게서 그야말로 幸運이 아닐 수 없었다. 선생님들마다 연령과 개성이 다르고 전공하는 분야도 달랐으나,

나에게는 한결같이 독특한 감화를 주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였던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정이며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릴 필요가 전혀 없었던 유일한 순서요 과정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오랫동안 所望해 온 교수가 되었을 때 맛 보았던 그 기쁨과 커다란 성취감은 10년 세월이 훨씬 넘어선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 나도 선생님들의 뒤를 잇게 되었구나” 하는 뿌듯한 긍지와 앞날에 펼쳐질 의연하고 존경 받는 교수직의 보람찰 나날에 대한 벽찬 기대가 젊은 가슴을 부풀게 했다. 응당 그렇게 진행되리라는 일념밖에 다른 생각은 꼬투리도 잡히지 않았을 만큼 당연시하였다.

병아리 교수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自矜心을 갖고 교수직을 감당해 왔다. 그러다가 이제 내 나이도 40代 중반에 접어들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금 이 나이는 대학 시절 그처럼 어려워 하고 우러트던 은사님들 중 몇분의 그때 당시의 연세에 바로 해당한다. 그런데 나 자신은 어떠한가? 그 시절 은사님들이 지니셨던 고매한 인격이나 학문적 권위에 비한다면 발 밑에도 미치지 못함을 실감한다. 선생에 대

한 존경이야 제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어봐도 판정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연베로서는 중견 교수가 되고서도 사정이 이러하니 어찌 교수직이 즐거울 수만 있겠는가? 속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요즘의 실상인 것이다.

여기에다 오늘의 대학 사회의 소용돌이는 나 자신과 학생들에게 두루 서먹함을 느끼게 한다. 이 시대처럼 대학이 온 사회와 국가적 관심의 표적이 되어 버린 시절이 있었던가? 어떻게 보면 대학 사회가 커다란 주목의 대상이 되다보니 대학 구성원의 중심 주체의 하나인 대학 교수도 세인의 더 큰 관심을 끌게 된 점도 있고, 교수의 一舉手 一投足이 사회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현실은 결코 그러한 안이한 樂觀을 不許한다. 오늘의 대학 교수는 대학의 주인된 지위를 상당 부분 상실하고 일종의 周邊人으로 떨어진 감도 없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학생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기록에 보면 과거 조선조에는 성균관 유생들의 기개가 대단하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조정의 부당한 정치적 조치가 내려지면 유생들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이 보여 준 이같은 젊은 義氣는 왕조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후세의 史家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살아 있는 정신의 미덕으로 평가하였다. 일제 때에는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의 大義를 주창하였으며, 4·19 의거 때에는 반독재 민주 정의의 선봉이 되었던 것이 바로 대학생이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치름으로써 마침내 민주주의 모퉁잇돌이 되었다. 자유당 정권 그리고 유신 치하로부터 5공화국 시절까지 즐기차게 저항하고 싸워 온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은 희생의 증폭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大道로 들어서게 하는 데에 결정

적 계기를 마련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어찌 높아지지 않겠는가? 또한 그들의 言行에 대한 정당성의 주장이 기성 세대보다 더 우렁차고 설득력을 갖게 됨은 그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물 때문이리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여전한 대학생들의 이른바 반제·반독재 투쟁은 이같은 연綿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요순 시절이니 태평성대니 하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인간의 삶의 역사에 크고 작은 모순이 없었던 시절이 과연 있었던가? 이렇게 보면 오늘의 현실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에서도 또 다른 모순과 부조리는 우리의 삶과 더불어 끈덕지게 恒存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양상이야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나, 대학생들의 현실 부정적 투쟁은 조만간에 종식될 성질의 것은 아니겠다. 따라서 그들의 동태는 온 국민의 지속적 관심사이자 시국의 중대 현안으로 계속 남아 있을 전망이다.

누가 보더라도 오늘의 대학생은 고등교육 기관의 단순한 피교육자의 위상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은 스스로 주장하는 바처럼, 우리 사회의 전환과 변혁의 제일선에 서 있는 태풍의 눈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현 시국의 안정과 중요 여부가 태반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내일의 주인공'이라는 어른들의 애기에 귀 기울이고자 하지 않는다. 내일의 주인공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은 각자의 역량을 기르기에 힘쓰자는 가르침은 기성 세대가 기성의 질서와 가치관을 지탱해 보려는 기득권자의 보수적 발언으로 간주되기 일쑤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오늘의 주인공이요 주체임을 내세우고 확증하고자 한다.

대학에 몸 담고 있는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매일같이 벌이

고 있는 크고 작은 집회, 시위, 투쟁의 몸짓과 목소리를 접하다 보니 이제는 그것은 어느 정도 이끌이 나고 어느새 만성이 되었나 보다. 그리하여 이제는 별다른 놀라움이나 충격도 따르지 않는다. 그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제발 덕분에 화염병과 쇠루탄이 난무·난사되는 점전까지는 이르지 말았으면, 불의의 불상사가 발생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상투적 소망이다.

쉬는 날도 없이 연일, 하도 목을 혹사하여 거의 쉰 목소리이지만, 마이크를 잡으면 이 시국의 동태를 질타하고 절박하리만치 분노를 드러내는 그 외침은 학내가 온통 울리고 江山이 메아리를 보낼 정도이다. 찌렁찌렁 소리를 높이는 이들 제자들을 대하면서도 오즈음 나는 한갓되게도 권태로움을 느끼기까지 한다. 물론 때로는 안스러움과 안타까움에 젖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불현듯 나의 무더진 감성과 이성애, 가치 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의지에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외치는 구호와 시국을 담은 각종 게시물이 어찌면 살벌하기까지 하고 현관 등 통로에는 熱血의 血濺이 나붙기도 하는 지경이다. 이런 판에 나의 이같은 안이하게 비켜 가는 반응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거듭 自問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속 옛말을 절제한다. 아니 사실은 내심의 말조차도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자신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어정쩡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수로서의 고뇌이다.

강의실에 들어가서는 진지하게 學問이 무엇인가를 논하면서 무엇을 어떤 方法論으로 다룰 것이며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엇하자는 것인가를 학생들과 더불어 거듭 따져 나간다. 또한 학문의 의의를 삶과 관련시켜 보며 가치를 평가하고 是非를 가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힘주어 일깨우고자 하는 바는 問題意識이고, 창의적 시각이며 과학적·논리적

실증이다. 본질의 문제를 탐색하고 가려진 진리를 발견하고자 함께 에쓰는 강의실의 열정 면에서는 교수나 학생 모두 인간 이성과 의지의 신뢰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처럼 강의실 안과 밖의 삶과 삶의 방식이 괴리감을 키우게 되는 것일까? 왜 양자가 조화롭게 연결되거나 힘 있게 결합되지 못하는 것인지 도무지 해답이 찾아지지 않는다.

바로 내 제자요 학생들인데 그들이 만약 學問外的인 시국 운동에 지나치게 경사되어 진정 마땅치 못하고 심지어 권태로움을 느끼기까지 한다면 왜 당당히 나서서 말려 보거나 나무라지 않고 수수방관만 일삼고 있는가? 또 그들의 호소가 진정 타당하고 절실한 것이라면 왜 안스러워만 하면서 격려하거나 동참하기를 주저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의 良識은 이같은 문제를 타개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리라.

한 인간이 인간다운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성으로서의 知와 감성으로서의 情과 인격체로서의 意志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크고 심오한 학문의 産室인 大學의 교수라면, 이 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 분자임을 스스로 믿고 또한 知性을 자처하는 부류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신뢰 받고 또 모범적인 삶의 뜻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학 교수조차 知·情·意의 3박자가 불협화음을 낸대서야 어찌 名實相符한 知性的인 인간으로서의 삶의 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랴. 분명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 많은 교수들은 이런 문제를 잘 감당하지 못하여 내적인 갈등이 심대하다고 본다. 그들은 현실의 여러 모순에 대처하여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양하고자 하는 태세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보다 중시하고, 보수성이 오히려 강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진취적인 학생들로부터는 불만을 크게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급진적인 학생들은 이러한 教授像을 기독교인들의 안전적 형태로 매도하기도 한다. 하기가 교수의 견해는 또 다를 수 있다. 너무 조급한 정치적 지향이나 태도의 선명한 표명은 학문 외적인 문제이며, 현 시점에서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그러하나 이 분제에 대한 상충된 견해가 오늘의 교수와 학생이 참 스승과 제자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師弟同行의 아름다운 관계로 잘 맺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 중의 중요한 일부는 될 것이다.

其實 오늘을 사는 많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전수하는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삶의 윤리적 결단을 시범하지는 못하는 데서 바른 삶의 길까지를 보여주던 傳來의 스승상을 계승하고 확보하지 못한 큰 부끄러움을 안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고 그를 기화로 삼아 일부 탈선하는 학생들은 민주 정의를 신봉하노라면서도 어론도

모르겠고 스승도 모르겠노라는 투의 비윤리적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 땅의 대학 풍토를 황폐하게 만든 계반사가 이 어찌 칠 모르는 학생들만의 책임이라. 그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잘못 이끌고, 혹 無力症에 빠져 탄식만을 일삼지는 않았던가? 聖經에서도 남의 선생되기 至難함을 가르치면서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였던 대목이 떠오른다. 교직이야말로 天職이라는 생각, 교수직이야말로 그중에서도 더욱 매력 있는 직분이라고 고지식하게 믿어 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 보면서, 오늘 나의 우울함이 결국 자업자득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달리 어찌랴? 나의 부족한 자질의 적나라한 인식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다시 무슨 수가 있을 것같지 않다. 내가 달라져야 할 것인가, 세상이 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도 바뀌고 나도 거듭나야만 할 일인가? 좁은 문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으리니 나의 이 우울함이 고질이 될까 두렵다.*